

장 이론 기반 번역주체 연구 동향: 주요 실증연구 결과를 중심으로*

임 진
(이화여대)

1. 서론

번역에 대한 성찰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연구의 중심을 텍스트나 사회제도에서 번역주체로 옮겨와서 번역주체가 번역이 생산, 유통, 수용되는 사회 또는 문화와 주고 받는 상호작용을 다각적으로 조망해야 한다는 의견은 다수의 학자에 의해 제기되어 왔다(Wolf 2007a; Chesterman 2009; Berneking 2016 등).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서 번역가라는 주체와 번역이라는 실천이 이루어지는 사회적 맥락 간의 역동적이고 입체적인 상호작용에 주목할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이에 사회학 이론을 차용한 학제적 사회학적(sociological) 번역 연구(Inghilleri 2009: 279), 즉 번역사회학(sociology of translation) 연구가 촉발되었다.

번역사회학에서 번역가는 사회구조 내의 번역 규범에 따라 번역물을 생산하는 정적인 존재가 아니다. 번역가는 때로는 자신이 속한 사회구조에서 통용

* 본고는 저자의 박사학위 논문(임진 2023) 일부를 수정, 보완한 것입니다. 깊은 통찰과 의미 있는 코멘트로 본고를 완성하는 데 크나큰 도움을 주신 익명의 심사위원 세 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되는 번역 규범에서 이탈하거나 이에 저항하기도 하고, 이는 다시 사회구조 및 질서의 변화를 수반하고, 이러한 변화는 다시 해당 번역가의 실천에 영향을 미친다(Hanna 2014; Inghilleri 2005a; Meylaerts 2008; Sela-Sheffy 2005 등). 이러한 역동적인 과정을 조망하는 데 있어 개별 주체와 사회구조라는 두 가지 중 어디에 중점을 두느냐는 이분법적 구분 대신 이들 간의 상호작용에 중점을 둔다는 점에서(Tyulenev 2014: 171) 번역 연구에 가장 광범위하게 적용되어 온 것인 부르디외의 장 이론(field theory)이다(Inghilleri 2020: 195).

그러나 국내 번역학에서 장 이론을 기반으로 한 연구는 이제 태동 단계라고 할 수 있다. 비단 번역학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국내 학계에서 부르디외에 대한 연구는 “놀랄 만큼 정체”(이상길 2018: 11)된 실정이다. 이에 본고는 장 이론을 기반으로 이루어진 실증적¹⁾ 번역주체 연구 동향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밝혀진 구체적인 연구 결과를 개괄함으로써 연구자들에게 장 이론을 통해 규명할 수 있는 번역실천의 다양한 측면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는 국내 번역사회학 연구의 활성화와 부르디외 연구에 대한 정체 현상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이를 위해 본고에서 제기하는 연구질문은 두 가지이다.

첫째, 장 이론 기반 번역주체 연구의 흐름은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

둘째, 장 이론 기반 번역주체 연구는 번역실천에 대해 어떠한 점을 밝혀냈는가?

연구질문에 답하기 위해 본고는 우선 장 이론의 핵심 개념을 약술하고(2장), 시기별로 장 이론 연구의 변천을 살펴본 다음(3장) 실증연구의 결과를 범주화한다(4장). 이를 통해 상기 두 질문에 답한 다음 의의 및 한계를 제시한다(5장).

2. 장 이론의 핵심 개념

부르디외는 1980년대 후반부터 사회과학 인용지수(Social Science Citation

1) 본고에서 실증연구란 ‘개념적 연구’(conceptual research)와 대비되는 ‘경험적 연구’(empirical research)(Williams and Chesterman 2002: 58-60)를 뜻하며, 경험적 자료를 바탕으로 한 질적, 양적 연구를 의미한다.

Index)에서 푸코 다음으로 학술 논문에 많이 인용되는 프랑스 지식인으로 꼽힐 바 있다(이상길 2018: 10). 그의 이론은 번역사회학에 가장 많이 적용되어 온 사회학 이론이기도 하다. 부르디외의 사회학이 가진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그가 “사고의 도구(thinking tools)”(Grenfell 2008: 2에서 재인용)라고 일컬은 독특한 개념들이기에, 이에 대한 설명이 선결되어야 한다. 장 이론을 이루는 핵심 개념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아비투스²⁾와 장, 자본이다.²⁾ 또한 번역주체 연구에서는 각 주체가 견지하는 번역결과물의 언어적 패턴을 뜻하는 헥시스(hexis) 역시 중요하게 취급된다.

2.1 아비투스(habitus)

아비투스란 “개인의 사회적, 생물학적 궤적을 통해 체득되고 장을 통해 지속적으로 형성과 교섭이 이루어지는 체화된 기질”을 의미한다(Inghilleri 2009: 280). 기질은 단순히 개인이 속한 사회구조의 영향을 받아 한 방향으로 단일한 사건에 의해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인생 궤적 전반에서 개인과 사회구조 간 벌어지는 상호작용이 누적되면서 형성된다.

(아비투스는) 양육 환경, 교육 경험 등 개인의 과거와 현재 상황에 의해 “조화된다(structured).” 개인의 아비투스가 자신의 현재와 과거 실천행위를 형성한다는 점에서 (아비투스는) “구조화한다(structuring)” (Bourdieu 1990: 53, Maton 2008: 51에서 재인용, 연구자 번역).

장 내에서 개인이 펼치는 실천은 각 실천주체의 아비투스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나게 된다. 아비투스는 한 개인이 실천이 이루어지는 장에 진입하기 전의 삶의 궤적을 통해 형성된 것과 전문 직업 실천을 펼치는 장에서 형성되는 직업적 아비투스로 구분하기도 한다(Gouanvic 2014; Simeoni 1998).

2) 장 이론의 핵심 개념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 선행연구(이영훈 2021a: 52-55; 이영훈 2021b: 235-239; 임진 2020: 171-173; 임진 2021: 662-666)에서도 상세히 제시된 바 있기에, 본고의 논의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내용만을 소개한다.

2.2 장(field)

장은 구성원들이 자본(capital) 획득을 위해 실천을 통해 경합을 벌이고 때로는 충돌하는 개념상의 공간을 의미한다. 하나의 독립된 장은 장 내의 “고유한 이해관계와 내기물”, “내기물을 차지하기 위한 투쟁에 기꺼이 참여하는 행위자들”로 구성된다(김동일 2016: 47). 장을 유지하려는 주체와 변화시키려는 주체 간의 끊임없는 투쟁이 벌어지는 사회적 공간이다(Tyulenev 2014: 173). 사회에서 모든 개인의 위치는 각자 보유한 자본의 양과 종류에 따라 결정되어 특정 계급(class)에 속하는데, 여기서 부르디외가 말하는 계급이란 지배계급, 피지배 계급 등으로 대표되는 신분과는 다른 개념으로 생활 양식, 취향, 특권 등을 공유하는 집단의 지위를 뜻한다(ibid. 176). 부르디외는 장의 작동 방식을 설명하기 위해 게임이라는 은유를 활용한다.

장에서의 작동 방식을 설명하기 위해 게임이라는 은유를 활용한다. 게임에 참가자는 자신의 몫으로 받은 패를 가지고 특정한 규칙에 따라 다른 사람들과 판돈을 더 많이 차지하기 위한 경쟁을 벌인다. 게임이 장이라면, 참가자의 패는 그가 이용할 수 있는 자본, 판돈은 그 장에 고유한 자본인 셈이다. (이상길 2015: 520)

여기서 각 주체는 “장 안에 내기물로 걸려 있는 자본이 가치 있으며, 따라서 그것을 획득하기 위한 경쟁은 의미있다”(이상길 2015: 516)³⁾는 일종의 암묵적인 믿음이나 환상을 갖게 되는데, 이것을 가리켜 일루시오(illusio)라 한다.

2.3 자본(capital)

자본이란 장 내에서 벌어지는 투쟁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도구로, 금전이나 기타 경제적 보상은 물론 장에서 획득하는 명성이나 인지도와 같은 것도 포함된다. 자본의 종류에는 유형 자산인 경제자본(economic capital), 개인이 삶

3) 본고에서 “이상길(2015)”로 인용된 부분은 부르디외와 바캉(Bourdieu and Wacquant 1992)의 번역서 『성찰적 사회학으로의 초대』 중 원문에는 없지만 역자 이상길이 추가한 용어 해설에서 발췌한 부분임을 밝힌다.

의 궤적을 통해 축적하는 지식이나 미적 취향 등을 뜻하는 문화자본(cultural capital), 인맥을 뜻하는 사회자본(social capital), 전문가로서의 인정, 특정 활동 영역에서의 명성 등을 뜻하는 상징자본(symbolic capital)이 있다(Tyulenev 2014: 175). 상징자본은 무형의 자본 일체로, 어떤 자본이든 외부의 인정을 얻게 되면 상징자본으로 기능할 수 있다(이상길 2015: 518).

2.4 헥시스(hexis)

아비투스룰 이루는 여러 요소 중 번역가에게 중요한 것은 언어 사용에 대한 기질일 것인데, 부르디외 이론에서 아비투스의 언어적 층위는 언어아비투스, 또는 헥시스(hexis)로 드러나는 언어 사용 패턴으로 정의된다. 헥시스는 ‘가지다’라는 그리스어 동사의 현재형에서 유래되었으며 “넓은 의미로 ‘획득하여 소유하게 된 상태’”를 뜻한다(이상길 2015: 537). 헥시스는 개별 주체의 인생 궤적을 거쳐 체화된 아비투스가 신체를 통해 드러나는 것으로 몸가짐, 외양, 자세, 몸짓, 언어사용 등을 포함하며 무의식적으로 몸에 배어 의도적으로 바꾸기 어렵다. 이 중 특정 장 구성원들은 특정 수사나 언어 사용을 체화함으로써 구성원들과 타자를 구분 짓는다(distinction)(Bourdieu 1991). 이 개념을 번역장에 적용한 찰스턴(Charlston 2012)에 따르면 “번역가의 헥시스는 [번역장에서의] 명예, 존엄, 전문가적 지위를 획득하고 유지하기 위한 번역가의 전략”(ibid. 52)이라고 볼 수 있다.

3. 장 이론 기반 번역주체 연구의 변천

본 장에서는 장 이론 기반 번역주체 연구가 어떠한 흐름을 거쳐 현재에 이르렀는지 살펴본다. 국제적으로 다양한 분야에 대해 연구 성과가 상당히 축적되어 온 연구 분야이기에, 연구결과를 정리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흐름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부르디외는 사회학적 연구에서 실증적 데이터를 무엇보다도 중시했는데, 이에 따라 부르디외 이론을 적용한 번역사회학 연구도 실제 번역주체, 번역 실천, 번역이 일어나는 사회구조를 다루는 실증연구가 주를 이룬다.

부르디외의 이론을 번역사회학에 적용하려는 시도는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본 장에서는 이 시기부터 번역학의 사회학적 전환의 토대가 만들어지는 2000년대 초반까지를 ‘태동기’로, 최초의 번역사회학 학술대회가 열리고, 사회학적 전환이 선언된 2000년대 중반을 ‘발전기’로, 이에 힘입어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장 이론 기반 연구가 양적, 지역적으로 확장되고 있는 2000년대 말부터 현재까지의 시기를 ‘확장기’로 구분하고 각 시기 연구의 특성 및 대표적 저술과 연구 성과를 개괄한다.⁴⁾

3.1 태동기(1990년대 후반~2000년대 초반)

1990년대 후반은 부르디외의 장 이론을 번역학 연구에 적용할 수 있을지를 탐색하던 시기이다. 이 시기에는 장 이론을 연구의 주요 분석 틀로 사용하기보다는 다중시스템이론, 규범 이론 등 기존 번역학 이론의 한계점을 보완할 목적으로 장 이론 개념을 부분적으로 차용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구앙빅(Gouanvic 1997)은 1920년대부터 미국에서 인기를 끈 공상과학(SF) 소설 장르가 제2차 세계대전 직후인 1950년대에 프랑스로 번역되고 성공적으로 수용되어 문학장 내에 독자적인 장르의 하위장으로 자리잡는 과정을 문헌 조사를 통해 추적하였다. 당시 프랑스 사회에는 미국 삶의 양식을 사회적 모델로 여기는 분위기가 존재했고, 이러한 독자층 덕분에 번역된 SF 소설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 수 있었다. 구앙빅은 프랑스 문학장에서 존재가 미미했던 SF 장르가 자율성을 확립해가며 독립된 장으로 작용하게 된 과정을 소개하고, 목표문화의 체계에만 주목하는 다중체계 이론 등 기존의 번역이론을 가지고 설명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보다 큰 설명력을 제공하는 대안으로 장 이론의 적용 가능성을 탐색하였다. 반면 번역사회학의 시초를 알리는 기념비적인 연구로 지목되

-
- 4) 본고에서는 이영훈(2021a)의 구분에 따라 연구의 규모가 국가 단위인 것을 거시적, 복수의 번역주체인 것을 중시적, 개별 번역가인 것을 미시적이라 칭한다.
- 5) 장 이론의 두 가지 근거가 제시된다. 첫째, 당시 서로 영향을 주고 받으며 미국과 프랑스에서 SF 장르를 형성한 주요 작가들의 경우 원문이 아니라 번역본을 통해 서로의 작품을 접했을 것이기에, 목표 문화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 둘째, 양국의 SF 장르 형성에 지대한 역할을 한 잡지는 미국에서 발간되었으며, 이를 창간한 발행인은 룩셈부르크에서 교육 과정을 마치고 미국으로 이주한 이민자였다.

는 시메오니(Simeoni 1998)는 투리의 규범 이론을 보강할 수 있는 수단으로 아비투스 개념을 제시하였다. 번역가는 역사적, 사회적으로 복잡적이며 부차적인 지위를 강요받아 왔는데 투리가 정의하는 규범에 비춰보면 이러한 지위는 온전히 수동적으로 주어진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러나 규범이 유지되고 새로 만들어지는 데 번역가가 일정 역할을 한다(ibid. 26)는 부르디외의 아비투스 개념을 적용해 보면 이것은 “자발적인 복종의 형태를 띠고 있다”(“it takes the shape of *servitude volontaire*”, ibid. 23, 강조는 원저자의 것)는 주장이다. 시메오니(1998)의 논의는 규범을 단순히 수용하기만 하는 수동적인 존재로서의 번역가가 아니라 규범을 수용할지, 이에 저항할지, 새로운 규범을 적용할지 결정하는 주체적인 번역가의 아비투스를 제시하여 새로운 연구 영역을 제시하였다는 의의를 가진다. 그러나 번역가가 역사적으로 강요 받은 복잡성에 대한 강조와 그것이 자발적이라는 시각에는 비판이 존재했고, 태동기뿐만 아니라 현재까지도 번역사회학의 중요한 논점이 되었다.

이에 대해 잉기레리(Inghilleri 2003, 2005a)는 난민통역 절차에 연루된 여러 주체 간 충돌하는 아비투스 간에 벌어지는 상호작용으로 인해 기존에 존재하는 관계가 변화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반문했다. 셀라 셰피(Sela-Sheffy 2005)는 1980년대 아직 제도화되어 있지 않은 이스라엘 문학번역장에서 활동하는 25명 가량의 문학번역가가 생산한 결텍스트 및 설문조사를 분석하여 이들의 아비투스를 고찰하였다. 연구 결과 이스라엘 번역장이 체계적으로 조직화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번역가들은 자신들의 작업이 텍스트 생산 과정에서 무대 뒤(behind the scenes) 그늘에 위치(kept in the shadow)(Sela-Sheffy 2005: 10)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해당 번역가들의 결텍스트에는 이들이 독립된 장을 형성하고 자신들의 지위를 확보하기 위한 적극적 노력이 드러나 있었다(Sela-Sheffy 2005, 2006). 이들은 장 내에서 자율적인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번역에 예술의 지위를 부여하고 다른 일반 번역가와 자신들을 차별화하기 위한 담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상징자본을 축적하려는 노력을 경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Sela-Sheffy 2006). 셀라 셰피(2006)는 해당 연구결과는 자신이 연구 대상으로 삼은 이스라엘 문학번역가에 한정되며 다른 장에서 활동하는 다른 번역가들의 경우 해당 장의 특성과 장 내에서 연구대상 번역가들이 차지하는 위상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번역사회학 태동기의 연구는 번역학에 새로운 학제적 연구를 제시하여 연구 외연을 확장하는 데 일조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3.2 발전기(2000년대 중반)

규범에 대한 번역가의 복종성과 주체성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이어지던 부르디외 기반 번역사회학 연구가 본격적인 발전을 맞은 것은 번역사회학의 본격적인 탄생을 알리는 논문집 및 단행본이 발간되었던 2000년대 중반이었다. 2005년 오스트리아 그라츠 대학에서 최초의 번역사회학 국제학술대회가 열렸고, *The Translator*가 발간한 2005년 특집호(Vol. 11, No. 2)에 부르디외의 이론을 주요 분석틀로 적용한 번역사회학 연구들이 수록되었다. 특히 본 호에는 이후 장 이론 기반 번역사회학에 중요한 기반을 제시한 미시적 연구(Gouanvic 2005; Hanna 2005)가 포함되어 있다. 이어 2007년에는 본격적인 번역사회학의 탄생을 알리는 주요 저술로 꼽히는 볼프와 후카리(Wolf and Fukari 2007)의 편서 *Constructing a Sociology of Translation*이 발간되었다. 부르디외 이론이 연구의 중심 분석 틀로 부각되는 시기에 편찬된 이 편서는 당대 이루어진 번역사회학 연구의 다양한 접근법을 총망라하고 있는데, 여기에 포함된 총 10편의 연구 중 6편(Buzelin 2007; Gouanvic 2007; Prunč 2007; Wolf 2007b)이 부르디외의 장 이론을 주요 틀로 삼거나 다른 이론과 함께 활용하였다. 위 두 편의 저술에 참여한 저자들은 이 시기 전후로 다양한 주제, 다양한 접근법을 활용하여 장 이론 기반 번역사회학 연구 발전에 기여했다.

특히 특정 문화권, 특정 집단 주체의 번역 실천과 번역 장을 다룬 중시적 차원의 연구가 속속 등장했다(Prunč 2007; Wolf 2006 등). 프룬치(Prunč 2007)는 번역장에서 문화를 형성하고 의미를 형성하는 강력한 권한을 보유한 성직자 번역가(translator-priest)(ibid. 48), 그리고 이와는 정 반대에 있는, 가시성이 낮고 복종적이며 낮은 자율도 수용하게 되는 천민 번역가(translator-pariah)(ibid. 49)라는 양극단의 아비투스(abitus)를 제시하며, 현실 세계의 번역가는 역사적으로 번역가에게 가해지는 각종 사회적 제약으로 인해 강력한 주체인 성직자 번역가가 되지 못하고 이 양극단 사이 어딘가에 위치한다고 주장한다. 중시적 연구에서 대표 저술로 꼽히는 뷔즐랭(Buzelin 2005, 2006, 2007)은 캐나다의 독립출판사

에서 문학 서적을 번역, 출간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주체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참여관찰을 통해 조사하였다. 부르디외의 이론과 행위자 네트워크 이론(ANT) 두 가지를 분석 틀로 적용하였다는 점에서 다른 연구와는 구분된다.

이들 연구의 경우 다수의 연구대상을 포함하기 때문에 복수의 주체나 실천 간에는 공통된 특성, 즉 상동성을 갖는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러한 접근법은 장 내에서 작동하는 다양한 권력, 자본 중 공통점, 즉 대표적인 것을 규명하는데 효과적일 수 있다. 그러나 개별 주체의 상세한 성장 궤적이나 직업 궤적, 그리고 일반적인 통념에서는 벗어나지만 사회를 구성하는 데 영향을 주는 특징이나 특이점이 드러나지 않고 간과된다는 한계를 지닌다.

거시적, 중시적 연구와 달리 특정 사회구조 하에서 개별 주체, 특정 실천을 분석 단위로 한 연구의 경우 사회구조 간 누적되는 상호작용을 통시적 관점으로 추적하여 개별적 특성이나 특이점과 그 변화에 집중하고 공통된 경향을 찾는 연구에서 간과되었던 여러 가지 양상을 깊이 있게 다룰 수 있다. 발전기에는 향후 부르디외 번역사회학 연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두 가지 형태의 연구가 등장한다.

우선 문헌 자료에 나타난 전반적 인생 궤적 및 번역가로서의 직업 궤적을 추적하여 개별 번역가의 아비투스(abitus)를 기술하고, 상반된 아비투스가 번역 실천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 분석한 연구가 있다(Gouanvic 2005, 2007; Gouanvic and Schultz 2010). 이들 연구는 미국 문학을 프랑스로 번역한 번역가 소수의 사례를 탐구하였다. 우선 문헌 자료에 나타난 전반적 인생 궤적 및 번역가로서의 직업 궤적을 추적하여 개별 번역가의 아비투스를 기술하고, 상반된 아비투스가 번역 실천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프랑스로 문학번역장이 작동하는 방식을 규명하였다.

이렇듯 번역가와 번역이 생산되는 맥락에만 중점을 둔 연구들이 등장하면서, 일부 학자들은(Inghilleri 2005b; Wolf 2007 등) 번역 결과물에 대한 분석 없는 번역사회학 연구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였다. 애초에 번역사회학 연구가 번역 결과물만을 분석하고 사회적 맥락을 고려하지 않는 기존 번역학 연구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번역 결과물에 대한 분석을 완전히 배제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번역사회학적 관점에서 번역가와 사회구조와의 입체적 상호작용을 그리면서 동시에 해당 번역가의 번역 결

과물에 이러한 상호작용이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추적한 다각적 연구가 촉발된다. 이러한 연구는 번역사회학 확장기 주요한 연구 흐름으로 자리잡게 된다. 한나(Hanna 2005)는 1900년대 초반 셰익스피어 비극을 이집트에서 공연하기 위해 아랍어로 번역한 한 유명 번역가 탄유스 압두(Tanyous Abduh, 1869~1926)의 사례를 조망한다. 1800년대 후반에만 해도 이집트에는 극장(theater)이라는 단어조차 존재하지 않다가 1900년대 초반 점차 희곡 관련 용어가 도입되며 희곡번역 장이 생성되기 시작한다. 당시 장 내에서는 대중의 선호도와 유명주연 배우의 편이가 최우선시되었고, 이 두 요소에 의해 번역 과정에서 원문의 왜곡이 광범위하고 적극적으로 이루어졌다. 압두는 그러한 관행에 순응하는 번역 결과물을 생산하면서도 직간접적으로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인다. 그 결과 그의 후기 번역에서는 원문 왜곡을 줄이는 방향으로 실천을 펼치게 된다.

발전기에 이루어진 연구는 태동기에 비해 장 이론에서 제시하는 여러 가지 핵심 개념들을 주요 분석 틀로 사용하려는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이밖에 장 이론의 적용 범위를 경계까지 확장할 것을 제시하거나(Wolf 2007a) 체계적 연구 모델에 대한 제안(Chesterman 2007)이 이루어지기도 했다. 체스터만은 아비투스 개념을 활용한 이론적 틀이 기존의 번역가나 번역 결과물, 사회구조 중 하나에만 집중했던 기존 관점을 통섭(consilience)하는 기능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아비투스 개념을 분화된 관점을 잇는 일종의 가교 개념(bridge concept)으로 삼는 연구 모델을 제안하였다. 한나(Hanna 2005)의 연구와 같이 장 이론 개념을 통해 번역 결과물, 이를 둘러싼 사회구조와 번역가 간의 다년 간에 걸친 상호작용을 추적한 연구 역시 체스터만이 제시한 연구 모델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3.3 확장기(2000년대 말~현재)

다양한 문화권, 다양한 분야의 번역실천을 장 이론을 통해 다룬 연구가 본격화되면서 2000년 후반부터 그간 축적된 연구 성과가 단행본, 편저, 학술지 특집호 등 다양한 형태로 발간된다. 이는 또다시 보다 다양한 학자에 의해 다양한 문화권에서의 다양한 실천을 다룬 실증연구로 이어지게 된다. 우선 *Translation*

*and Interpreting Studies*의 2012년 가을 특집호(Vol. 7, No. 2)⁶⁾는 번역사회학을 주제로 하고 있는데, 여기에 수록된 논문 중 총 다섯 편이 장 이론과 연관된 저술이다(Ben-Ari 2012; Mason and Ren 2012; Osman 2012; Song 2012; Wolf 2012). 벤-아리(Ben-Ari, 2012)는 제2차 세계대전 직후 이스라엘에서 사회적 비주류가 된 다양한 기질의 반체제인들이 다른 직업을 찾지 못해 어쩔 수 없이 번역에 종사하며 주류로 편입되는 사례를 조망한다. 당시 번역장 자체가 매우 불안정하고 변화무쌍하였고 장 내 주체들 역시 생존을 위해 고군분투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 장과 주체 간의 상호 구성을 통해 번역가로서의 전문직업 아비투스⁶⁾가 축적될 수 있을지에 의문을 제기했다. 송(Song 2012)은 중국 고전을 영어로 번역한 두 미국 번역가의 사례를 조망하였다. 명망 있는 번역가의 기존 번역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한 신참 번역가가 이를 재번역, 출간한다. 번역서의 주제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던 기존 번역가의 명성에 도전하기 위해 신참 번역가가 자신의 문화자본과 경제자본, 단순화하는 번역 전략을 채택하고 바깥텍스트를 통해 이를 정당화하는 과정을 조망한다.

거시적 측면에서 번역가의 행복도와 가시성을 번역가의 자본과 연결한 연구도 있다(Liu 2013a). 류(Liu 2013a: 125)는 번역가의 직업 행복도와 가시성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에서, 번역가와 의뢰인 간의 직접적인 상호작용을 번역가의 가시성의 한 요소로 포함시킨 바 있다. 류(2013a: 126)는 의뢰인에게 번역에 대한 피드백을 받는 것을 번역가가 획득하는 문화자본으로, 의뢰인의 기대를 충족하는 것을 번역가의 상징자본으로 분류하여, 193명의 중국 번역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가시성이 높은 번역가들의 직업 행복도가 더 높았으며, 이들이 추구하는 자본과 획득하는 자본 간의 격차도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에는 부르디외의 아비투스 이론을 번역학에 적용한 다양한 실증 연구를 수록한 논문 모음집 *Remapping Habitus in Translation Studies* (Vorderobermeier 2014a)가 출간되었다. 본 단행본에 참여한 연구자들은 부르디외의 아비투스 개념을 중심으로 번역가의 생애사(Torikai 2014), 번역장의 하위장인 전문 분야 장의 존재 여부(Grbić 2014), 번역가의 직업 궤적(Abdallah

6) 이 논문 모음집은 2014년 단행본으로 출간되기도 했다(Angelelli 2014).

2014; Vorderobermeier 2014b), 번역가의 헥시스(Pasmatzi 2014), 번역가의 1차 아비투스에 따라 달라지는 번역 분야(Gouanvic 2014), 자신의 작품이나 타인의 작품을 번역하는 일이 빈번한 바스크 작가들의 번역에 대한 인식(Ibarluzea 2014), 난민통역 상황에서 드러나는 통역사의 아비투스(Inghilleri 2014)를 탐구 하였다.

이 외 다양한 문화에서 부르디외 이론을 활용한 심층적인 연구가 이루어져 그 결과가 단행본으로 출간되었다. 합스부르크 제국의 통역, 번역 실천(Wolf 2015, 2012년에 출간된 원전의 영어 번역본), 영어 판타지 문학을 대만에 번역, 출간한 번역가(Chung 2013), 셰익스피어 희곡을 번역, 출간한 이집트 번역가(Hanna 2016), 헤겔의 철학서를 영어로 번역한 번역가(Charlston 2020)가 저마다 다른 번역장에서 어떠한 번역 선택을 통해 장에서 명예를 추구했는지에 대한 다수의 연구가 앞다투어 출간되었다. 이들 연구는 모두 특정 실천이나 특정 번역가의 사례를 심층적으로 조망한 미시적 연구이며, 동시에 번역 결과물에 대한 분석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4. 장 이론 기반 번역주체 연구의 주제별 분류

본 장에서는 앞장에서 밝혀진 연구동향을 기반으로 장 이론 기반 번역주체 연구 결과를 헥시스 분석이 포함되어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나누어 살펴본다.

부르디외 장 이론의 핵심 개념이 아비투스이기에, 장 내 사회구조 또는 대규모 집단에 초점을 맞춘 연구(Liu 2013a 등)를 제외하면 본 이론을 분석 틀로 삼는 번역주체 연구의 상당수는 아비투스 연구라고 볼 수 있다. 번역주체가 아닌 장에 중점을 둔 연구라고 하더라도 예외는 아니다. 부르디외(Bourdieu and Wacquant/이상길 역 1992/2015: 185)는 장 연구의 절차로 우선 연구대상이 되는 장의 위치, 해당 장 내 주체나 기관 간의 구조를 파악한 다음 주체의 아비투스를 분석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아비투스 개념을 적용한 번역주체 연구에서 밝혀진 결과에 초점을 맞춘다.

장 이론 기반 번역주체 연구는 연구대상의 규모에 따라 특정 문화, 특정 집단 내 번역가가 견지하는 아비투스를 탐구하는 연구(Abdallah 2014; Ben-Ari

2012; Inghilleri 2003, 2005a, 2005b, 2014; Liu 2013b; Sela-Sheffy 2005, 2006, 2010; Vorderobermeier 2013, 2014b; Wolf 2015 등)와 개별 번역가의 *아비투스*를 탐구하는 연구(Charlston 2012, 2013, 2020; Gouanvic 1997, 2005, 2014; Gouanvic and Schultz 2010; Hanna 2005, 2014; Liang 2016; Meylaerts 2010; Pasmatzi 2014; Xu and Chu 2015; Yannakopoulou 2014 등)로 나눌 수 있다.

상기 연구들은 연구대상 번역가가 처한 사회구조에서 저마다 다양한 삶의 궤적을 거치며 체득하게 된 *아비투스*를 기술하고, 이것이 어떻게 번역 실천을 형성하고 또한 해당 번역 실천에 번역장을 어떻게 형성하는지를 규명하고 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개인이 번역장에 진입하기 전 성장 과정, 가정 환경, 교육 과정, 기타 직업 경력을 통해 견지하게 된 개인적인 *아비투스*와 번역장에 진입한 이후에 체득하게 되는 전문직업인, 즉 번역가로서의 *아비투스*를 구분하고 두 *아비투스* 간의 관계를 규명하는 것이다. 그러나 *아비투스* 개념의 핵심이 되는 두 하위 개념에 대해 연구자마다 다른 술어가 사용되고 있기에, 우선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시메오니(1998)는 *아비투스*를 사회적 *아비투스*(social habitus)(*ibid.* 19), 전문적 *아비투스*(specialized professional habitus)(*ibid.* 18)로 구분하였으나 두 *아비투스*를 명확하게 정의하거나 차이점을 제시하지는 않고 있다. 메일라에르츠(Meylaerts 2010: 2)는 번역가의 *아비투스*를 논할 때 전문적 *아비투스*(professional habitus)뿐만 아니라 삶 전반에서 축적된 초기 *아비투스*(initial habitus)를 고려해야 함을 지적한다. 여기서 초기 *아비투스*는 개인의 초기 사회화 과정에서 형성되는 개인의 정신적, 육체적 구조로 정의된다. 초기 *아비투스*는 특정 맥락에서 적절하다고 인식되는 것에 대한 감각(a sense of what is perceived as appropriate behavior in a certain context)(Meylaerts 2010: 2)을 개발하는 데 중요하기에 이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다.

번역가 *아비투스*의 두 측면을 보다 발전시켜 체계적으로 정의하고 실증적으로 규명하려는 시도를 한 것은 구앙빅(Gouanvic 2014)이다. 그는 번역가가 되기 전까지 개인의 사회화 과정에서 형성되는 *아비투스*를 1차 *아비투스*(primary habitus), 번역 실천을 수행하는 과정을 통해서만 형성되는 *아비투스*를 2차 *아비투스*(specific habitus)라 정의한다(*ibid.* 26). 번역가의 1차 *아비투스*는 성장과정, 가정 환경, 교육 등의 사회적 궤적을 거치면서 형성되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중언어와 이중문화를 습득하는 방식이다. 구앙빅의 기준에 따르면 1차 아비투스⁷⁾와 2차 아비투스를 구분하는 기준은 직업 실천과의 연관성 여부로, 시간순이 아니다. 2차 아비투스는 교육 훈련, 학업, 수련이나 실습, 학술대회 등의 활동을 통해 형성되며 하위 장(예: 법률 번역, 과학 번역, 문학 번역 등)의 특성에 따라 실천 양상은 달라진다(ibid. 32-33). 이하 본고에서는 비교적 체계적으로 발전된 구앙빅의 정의에 따라 번역가가 되기 전 삶의 궤적에서 형성되는 아비투스를 1차 아비투스 번역장에 입문한 후 형성되는 전문직업인으로서의 번역가 아비투스를 2차 아비투스라 한다.

두 가지 아비투스의 구분이 중요한 이유는 번역장에서 번역가의 번역 실천을 2차 아비투스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메일라에르츠(2010: 15)는 번역가의 아비투스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번역장을 넘어서 다른 장이나 삶 전반에서 번역가가 축적한 기질이기 때문에 번역가의 사회적 전기(socio-biographies)에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앙빅(Gouanic 2014) 역시 번역장에서 형성되는 2차 아비투스가 번역가 개인의 삶 전반에서 축적되어 온 자본 및 1차 아비투스와 깊이 연관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이를 사례연구를 통해 실증적으로 보여준다.

<표 1>은 장 이론을 기반으로 한 번역주체 연구에서 밝혀진 결과를 분류한 것이다. 이들 연구 결과에서 제시하는 바는 번역가가 삶 전반의 궤적을 통해 체득한 1차 아비투스는 번역가의 2차 아비투스, 즉 번역 대상의 선정, 번역장에서의 상호작용, 번역가의 직업 궤적, 번역의 동기(일루시오), 번역장에서 획득하고 축적하는 자본의 종류와 자본 획득의 방법, 번역 결과물의 언어적 특징(헥시스)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본 장에서는 3장에서 제시한 연구동향을 고려하여, 번역결과물에 대한 분석을 포함하지 않고 번역실천을 논의한 연구(4.1절)와 번역결과물, 즉 헥시스 분석을 고려한 연구(4.2절)로 나누어 제시한다.

7) <표 1>은 장 이론 기반 실증연구 결과 번역실천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제시된 1차 아비투스 항목, 그리고 1차 아비투스와 번역장 내 사회구조와의 상호작용으로 형성되어 가는 2차 아비투스 요소를 분류한 것이다.

〈표 1〉 장 이론 기반 번역주체 연구의 주제별 분류

분류	상세분류	설명	실증연구
1차 아비투스	성장과정	가정 환경, 가치관, 모국어 습득 과정, 해외거주 경험 등	Bayri (2019), Hanna (2005, 2014), Meylaerts (2010)
	교육과정	학교, 전공, 유학 경험	Alkhawaja (2019), Charlston (2013)
	직업경험	번역과 관련되거나 관련 없는 분야에서의 경력, 경험	Chung (2013), Charlston (2012, 2013, 2018, 2020), Hanna (2005, 2014), Xu and Chu (2015)
	외국어 습득	번역가가 되기 위한 외국어 습득 경험	Bayri (2019), Gouanvic (1997, 2005, 2014)
2차 아비투스	번역대상 선정	번역할 작품 선정과 그 과정	Alkhawaja (2019), Bayri (2019), Gouanvic (2005, 2014)
	장 내 규범	장 내 텍스트 규범, 기타 규범과의 상호작용, 타 구성원과의 상호작용	Bayri (2019), Chung (2013), Liang (2016), Liu (2013b), Sela-Sheffy (2005, 2006, 2010, 2014)
	직업 궤적	번역가 데뷔 경위, 번역장에서의 다양한 직업궤적, 영역 확장 등	Abdallah (2014), Ben-Ari (2012), Vorderbermeier (2014b)
	일루시오	번역실천, 번역대상 선정 동기	Gouanvic (2005, 2014)
	헥시스 ⁸⁾	번역가의 언어적 아비투스(원문지향성, 원문의 변형, 번역 전략)	Alkhawaja (2019), Bayri (2019), Charlston (2012, 2013, 2018, 2020), Hanna (2005, 2014), Liang (2016), Pasmatz (2014), Xu and Chu (2015), Yannakopoulou (2014)

4.1 번역결과물 외 번역실천을 다룬 연구

우선 번역가의 1차 아비투스는 번역가가 번역장에서 자신의 번역 분야를 택하거나, 해당 분야 안에서 자신이 번역할 작품을 선정하는 과정과 동기에 깊이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Alkhawaja 2019; Bayri 2019; Gouanvic 1997, 2005, 2014). 번역장 입문 전 외국어 습득 방법(Gouanvic 2005, 2014), 학력 및 전공(Alkhawaja 2019), 해외 체류를 통한 문화적 경험(Alkhawaja 2019; Bayri 2019; Gouanvic 2005, 2014)에 따라 번역가는 자신의 번역 분야를 정하

8) 여기에 해당되는 연구들 중에는 헥시스라는 술어를 직접 사용하지 않은 연구들도 포함된다(Hanna 2005; Bayri 2019; Liang 2016 등). 그러나 개념상 번역결과물 텍스트 분석과 번역주체의 삶 및 사회구조에 대한 분석을 연계한 연구는 모두 이 범주에 포함시켰다.

고 작품을 선정한다.

우선 번역가의 문화자본, 특히 언어 습득 경로는 실천에 주요한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아랍학(Arabic studies) 박사학위를 취득한 번역가 트레버 르가식(Trevor LeGassick)은 여러 아랍 국가를 여행하며 아랍 사회에서의 사회자본을 축적하며 그 과정에서 아랍 문학 작품을 접하고 흥미를 느끼게 된다. 이는 그가 아랍 문학 작품을 번역하기로 결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Alkhawaja 2019: 15-16). 구양빅(2014) 역시 비속어와 구어체로 영어를 습득한 번역가와 학술장의 엘리트 코스를 밟아 문학번역가가 된 두 번역가의 대조적인 작품 선택에 대해 논한 바 있다. 작품 선정뿐만 아니라, 번역가의 문화자본으로서의 언어 능력은 자본 획득을 위한 전략으로도 동원된다. 번역장이 제도화되어 있지 않은 이스라엘의 경우, 번역장에서 스타로 활약하고 있는 약 20명가량의 문학번역가들은 번역서의 서문, 역자후기 등을 통하여 모국어 유창성을 기반으로 한 자신들의 번역 과정을 예술적 과정으로 묘사하고 신비화하는 담화를 적극적으로 생산한다(Sela-Sheffy 2006, 2010). 이는 문학번역가의 자율적 지위를 발전시켜 상징자본의 원천으로 삼으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이해할 수 있다(Sela-Sheffy 2005: 11).

번역주체가 지닌 다른 장에서의 이력이나 경력 역시 번역장에서의 자본 추구를 위해 활용되기도 한다. 송(2012)은 중국 고전을 재번역한 신참 번역가 갈리아르디(Gagliardi)의 사례를 통해 1차 아비투스과 2차 아비투스 간의 연관성을 조망한다. 갈리아르디는 하버드 대학교를 졸업하여 경제장에서 이미 명망 있는 기업가로서 상당한 경제자본을 축적한 바 있으며 성공한 기업인으로서 상징자본을 보유하고 있었다. 그는 중국의 고전인 『손자병법(孫子兵法)』을 재번역하며, 고전서가 가지고 있는 “고급문화(high and serious culture)”로서의 성격을 “대중문화(low and popular culture)”로 변형하여 더 많은 독자층을 확보하고자 했다(Song 2012: 188). 또한 그는 번역서와 관련된 컬렉트에서 자신의 학력과 성공한 기업인으로서의 명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번역서의 성공과 함께 후속으로 손자병법을 비즈니스에 적용한 실용서 시리즈 13권을 출간하여 성공을 거둔다. 그는 자신이 경제장에서 가진 경제자본과 상징자본을 출판장에서 효과적으로 경제자본으로 전환했다고 볼 수 있다.

반면 번역가의 1차 아비투스스와 2차 아비투스스의 연관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연구도 존재한다(Ben-Ari 2012; Liu 2013b 등). 벤-아리(Ben-Ari 2012)는 2차 세계대전 직후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팔레스타인 출판번역가로 등장한 수정주의자 지식인 집단의 아비투스스를 다룬다. 팔레스타인이 영국령이었던 1917년에서 1948년, 수정주의와 사회주의의 격렬한 주도권 투쟁이 벌어지고, 이 투쟁에서 영국의 힘을 입은 사회주의 분파가 주도권을 잡게 된다. 그 후 수정주의자들은 사회 주류에서 밀려나 공적 영역에서 그 어떤 일자리도 얻을 수 없게 된다. 이들은 “최후의 보루(last resort)”(ibid. 145)로 민간 출판사에서 번역가, 편집자, 출판인으로 일하며 주류 사회로의 진입을 꾀한다. 그는 번역가 아비투스스를 갖춘 사람이 번역장에 입문하여 번역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대안이 없는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선택하게 되는 것이며, 같은 번역가라고 해도 상이한 직업 궤적을 갖게 된다는 점에서 번역가의 아비투스라는 것이 존재하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였다. 류(Liu 2013b)의 경우 중국, 홍콩, 대만, 마카오에서 중국어 번역에 종사하는 193명의 번역가 집단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이들이 보유한 가시성과 이들이 번역장에서 획득하는 자본 간의 상관관계를 밝히고자 했다. 조사 결과 1차 아비투스스로 요약되는 이들의 학력, 전공, 성별, 기타 경력은 번역가로서의 가시성과 관련이 없었으며, 번역가로서의 가시성은 장 내에서의 사회자본, 문화자본 축적에는 도움이 된 반면 경제자본이나 상징자본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들 두 연구는 서로 다른 아비투스스에 나타나는 상동성, 미시적 연구와 중시적 연구의 상이한 초점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있다. 번역가의 아비투스스를 연구하는 목적은 동일 실천에 종사하는 번역가가 모두 동일한 삶의 궤적과 아비투스스를 견지하고 있다는 일반화를 하기 위함이 아니다. 각 번역가가 번역에 종사하게 된 과정과 배경, 그 결과 나타나는 번역 실천을 결부시키는 분석의 목적은 오히려 특정 번역 실천에 대한 다양한 설명 가능성을 제시하는 것이다.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양상이 아니기에 기존 연구에서 간과되어 왔지만 분명 번역장에 존재하는 실제 실천을 상세하게 규명하여 번역의 실체에 한 걸음 가까이 다가가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시각에서 보면 상기 두 연구(Ben-Ari 2012; Liu 2013b)의 결과는 번역가의 아비투스 개념 자체를 부정하는 사례로 간주하기보다 번역 실천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는 변수 중 하나를 제외

하는 사례로 보는 것이 더 적절하다. 또한 상기 두 연구는 번역 실천을 설명하려면 특정 집단 번역가를 동질성을 가진 존재로만 간주하기보다 각 번역가의 개별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상 본 절에서 상술한 선행연구들은 번역가의 1차 아비투스를 형성하는 성장 과정과 환경, 모국어와 외국어 습득 방법, 교육이 번역장에서 해당 번역가가 번역 분야와 번역서를 선택하는 동기와 과정, 번역 결과물에 대한 규범과 기타 번역 규범에 대한 태도, 번역가로서 자본을 획득하고 직업 궤적을 선택하여 장 내 권력을 쟁취하는 방식에 일정 부분 상호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과정을 규명하고 있다. 다음 절에서는 개별 번역가의 1차 아비투스와 해당 번역가의 직업 실천에서 관찰되는 언어적 특성을 연관지어 설명한 연구에 대해 살펴본다.

4.2 헤시스 분석을 포함한 연구

3장에서 상술한 바와 같이 장 이론 기반 실증 연구가 활성화된 2010년을 전후하여, 번역주체 및 사회적 맥락과의 상호작용과 함께 번역결과물 분석까지 포함하여 다각적인 관점에서 번역주체를 연구하는 흐름이 나타났다. 본 장에서는 이렇듯 삼각검증(triangulation)을 통해 장 이론을 적용하여 번역주체를 다룬 연구에 대해 살펴본다.

기존 헤시스 연구는 번역주체가 거쳐 온 삶의 궤적 및 사회구조에 대한 분석 결과를 번역 결과물 텍스트 분석 결과와 연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이 중 텍스트 분석 방법은 모두 특정 번역 결과물과 원문의 병렬 코퍼스(parallel corpus), 즉 원문과 이에 대응하는 번역결과물을 분석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분석 결과 역시 기존 번역 결과물 중심 연구에서 종종 활용되는 분석 범주와 유사하다. 원문에 없는 내용이 추가되었는지(Hanna 2005, 2014; Xu and Chu 2015), 원문의 내용이 번역 결과물에서 삭제되었는지(Song 2012; Xu and Chu 2015), 또는 원문의 형태나 의미가 번역 결과물에서 변형되었는지와 이 외 기타 번역전략이라는 네 가지 범주를 중심으로 번역 결과물의 언어적 특징이 기술된다. 이 중 변형 항목은 형태적 변형, 의미의 변형, 어조의 변화로 나눌 수 있다. 좀 더 세부적으로 원문 구문 형태나 문장 구분의 변화(Song 2012; 임진 2020a), 의문문, 감탄문 등 문장 종류의 변화(Hanna 2005), 번역문을 원문보다

단순화 또는 명시화(Bayri 2019; Song 2012)하거나 용어 일관성을 의도적으로 변형하는 경우(Charlston 2012, 2018), 대소문자 표기 등 원문과 다른 표기법(Charlston 2012)과 같은 형태적 변화를 뜻한다. 이밖에 원문의 의미가 번역문에서 변형되었거나 원문의 어조(tone)가 강화되거나 약화된 것 또한 변형에 해당된다. 기타에는 번역가가 이국화(Bayri 2019; Liang 2016; Song 2012; Xu 2011, 2012) 또는 자국화(Alkhawaja 2019; Charlston 2012, 2013, 2018; Pasmatz 2014) 전략을 선택하는 사례가 포함된다. 번역가의 핵시스를 조망한 연구들은 위와 같이 번역 결과물 텍스트에 나타난 언어적 특징을 해당 번역물을 생산한 번역가의 아비투스(a)와 연계하여 해석하고 이에 대한 설명을 제시한다. 본 장에서는 편의상 번역가의 핵시스 연구를 1차 아비투스 및 당대 번역장의 규범과 연계하여 설명한 연구로 구분하여 살펴본다.

4.2.1 1차 아비투스와 핵시스를 다룬 연구

번역가의 핵시스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진 요소는 1차 아비투스 중 번역주체가 거쳤던 직업 궤적을 꼽을 수 있다. 대표적인 연구로는 한나(2005, 2014)를 들 수 있다. 한나(2005)는 1900년대 이집트 희곡 번역장을 장 생성 초기 셰익스피어의 비극 『햄릿』을 아랍어로 번역한 탄유스 압두(Tanyous Abduh, 1869~1926)의 사례를 통해 당시 이집트 희곡장이 형성되는 시기 희곡 번역 규범과 번역가의 상호작용을 조망한다. 압두의 햄릿 아랍어 번역본은 1902년 완성되어 1902년부터 1917년까지 상영된다. 압두의 번역 결과물의 특징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 원작은 햄릿의 죽음과 함께 비극적 결말을 맞지만, 이 부분은 삭제되고 번역본의 마지막 장면에서는 햄릿이 죽지 않는 해피엔딩(“you may happily live on earth”)으로 마무리된다(ibid. 171). 둘째, 원작의 비극적 효과가 번역본에서는 매우 매끄럽고 유창한 담화로 변형되어 서정적 멜로 드라마 형태를 띄게 된다(ibid. 171-173). 셰익스피어 비극의 특징은 극의 결정적인 장면에 등장하는 주인공의 독백이다. 비극의 서사를 그리는 햄릿에서 주인공의 독백은 삶과 죽음, 행동과 비행동의 대비를 강조하기 위해 의문문과 휴지(pause), 동어 반복이 매우 높은 빈도로 나타나는데, 이러한 특징이 압두의 번역문에서는 전체적으로 중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원작이 대대적으로 개작된 배경으로 번역가 압두의 삶의 궤적과 당대 이집트 희곡 장의 규범의 상호

작용이 제시된다. 우선 압두는 오늘날 레바논이 된 지역에서 이집트로 이주한 이민자였는데, 이 이민자들은 당대 이집트 언론장을 형성한 주요 세력이었다. 압두는 뉴스 기사를 쓰고 번역했으며, 주로 주간지에 실리던 대중소설을 번역하였다(ibid. 189). 언론장에서 그의 실천과 직업 궤적은 희곡 번역가로서 그의 번역문에 상당한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그는 많은 대중 독자를 확보하고 있는 언론매체에서의 글쓰기와 대중소설 번역 경험을 통해 표준적인 언어와 구어체의 사이에 위치한, 수사적이기보다는 대화체에 가까운 번역을 구사하게 되었다(Hanna 2014: 66). 같은 맥락의 연구로는 수(Xu 2011)로, 중국 작가 선충윈(Shen Congwen)의 소설을 영어로 번역한 복수의 번역가와 번역본을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그는 다수의 번역본을 번역의 방향(번역가의 모국어 또는 외국어로 번역), 번역 시기(1930-40년대, 1980년대 이후), 번역가의 직업 궤적(학자 또는 비학자)에 따라 분석한 결과 번역 결과물에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치는 요소는 번역가의 직업 궤적임을 밝혔다. 그의 연구에 따르면(Xu 2011, 2012) 학술장에서 형성된 번역가의 1차 아비투스(abi-tus)는 번역 실천에 뚜렷한 차이를 남겼다. 학자 번역가의 경우 원문지향성이 강한 헥시스(hegemony)를 견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분한 번역(adequate translation)을 위해 원문의 서정적 내러티브를 그대로 유지하고, 텍스트 내에서는 명시화 전략을 통해 원문의 의미를 부연설명하고 텍스트 밖에서는 주석을 통해 원문이 가지는 함의를 전달하는 데 공을 들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학자가 아닌 모국어 방향으로 번역하는 번역가의 경우 목표문화 독자의 선호를 수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번역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번역가 개인의 가치나 신념이 번역관 형성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는 사례도 존재한다(Bayri 2019). 서구에 소개된 번역본 중 가장 영향력 있는 코란이라고 평가받는 *The Message of the Qur'an*을 번역한 아사드(Muhammad Asad)는 1890년 유복한 유대인 부모님 슬하에 합스부르크(현재의 오스트리아)에서 태어났다. 20세기 중반 독일 주요 일간지 특파원 신분으로 중동에 살게 되면서 아랍 문화에 매료되고, 이슬람교로 개종을 하고 개명까지 한다. 그는 이슬람 재건이라는 가치에 깊이 공감한 끝에 이슬람어와 영어에 능통한 자신의 문화자본을 십분 활용하여 서방 세계에 이슬람 가치를 대변하게 되고, 1947년 파키스탄 개국 공신으로 정부 요직을 거치게 된다. 이러한 삶의 궤적은 그가 코란을 그 어떤 것보다 세계의 종교적, 사회적, 정치적 역사에 근본적 영향을 미친 저술로

인정하며 경배하고, 코란을 ‘단일한 통합체’로 취급하여 아랍어의 구문과 문법을 최대한 살리는 원문지향적 번역 규범을 갖게 된 요인 중 하나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ibid. 10).

4.2.2 번역장 규범과 헥시스를 다룬 연구⁹⁾

각기 상이한 아비투스를 견지하는 번역주체는 번역장의 규범과 각기 다른 방식으로 상호작용을 거치며, 이에 따라 헥시스를 형성하게 된다. 이 중 당대 번역 규범과 번역주체가 상호작용하는 방식으로 헥시스를 설명한 대표 연구에는 리앙(Liang 2016), 파스마치(Pasmazi 2014), 수와 추(Xu and Chu 2015) 등이 있다.

파스마치(2014)는 영국 소설 『코렐리의 만돌린』(*Captain Corelli's Mandolin*)(1994)을 번역한 그리스 문학번역가(Louis de Bernières)의 사례를 문헌조사 및 면접조사를 통해 조망하였다. 파스마치는 번역가의 헥시스는 장에서 명예를 추구하기 위해 번역가가 취하는 입장이라는 찰스턴(2012)의 정의에 동의하고, 이에 대한 실증적 사례를 제시한다. 그가 연구대상으로 삼은 소설의 영국 원작은 2차 세계대전 당시 이탈리아군이 그리스의 한 섬을 점령했다가 독일군에게 몰살당했던 실제 사건과 장소를 배경으로 이탈리아 장교와 그리스인 여성이 겪은 사랑과 비극을 그리고 있다. 영국 작가가 쓴 이 소설은 영어로 영국에서 먼저 출간된 후 그리스어로 번역되어 원작의 배경이 된 그리스에서 출간된다. 번역 과정에서 원작자는 물론 출판사 역시 역사적 비극의 배경이 된 목표문화 독자가 이를 수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번역에 수정을 가하기를 원하게 된다. 번역가는 이에 따라 목표문화에서 번역가로서의 명예를 추구하는 데 적절한 방식으로 번역 선택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번역 결과물에서는 역사적 비극에 대한 묘사 시 원문에 비해 완곡어법(euphemization)이나 정화된(sanitized) 담화가 사용되었으며, 목표문화 독자들에게 수용되지 않을 것으로 여겨지는 일부 내용은 다소 과도하게 수정되거나 생략되기도 했다(ibid. 82). 파스마치는 해당 소설이 번역, 출간되는 과정에서 번역실천과 출판번역장이 상호

9) 4.2.1항과 4.2.2항의 구분은 명확하지 않다. 번역주체의 헥시스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1차 아비투스를 언급한 부분은 4.2.1항에, 당대 번역규범에서 그 요인을 찾고자 한 것으로 보이는 부분은 4.2.2항에 소개하였다.

작용하며 상호 구성되는 과정을 결테스트와 번역 결과물, 번역가와 의 면접조사를 통해 다각적으로 조망한다. 유사한 연구로는 리양(2016)을 들 수 있다. 리양(2016)은 대만에서 번역, 출간된 영국 판타지 소설 텍스트를 분석하여 문화적 요소(cultural-specific items) 번역에 나타난 원문지향성(source-oriented), 즉 이국화(foreignizing) 현상에 주목한다. 2002년부터 2004년까지 대만에서 번역 출간된 네 종류의 판타지 소설 원문과 번역문 병렬코퍼스에서 문화적 요소 번역에 사용한 전략의 빈도를 분석한 결과, 장르에서 원문지향적 번역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리양(2016)이 원문을 지향하는 번역으로 제시한 주요 전략에는 음차(transliteration), 대체(substitution), 텍스트 내부 또는 외부에 추가(intratextual/extratextual addition)가 포함되며, 목표어를 지향하는 번역 전략으로 삭제와 자국화가 포함되었다. 원문지향적 번역가는 음차 또는 대체 전략을 더 빈번하게 활용하는데, 이 경우 원문의 의미를 전달하기 위한 일종의 보상 전략으로 번역 텍스트 내부 또는 외부에 부연 설명을 덧붙이게 된다는 것이다(Liang 2016: 48-49). 리양(2016)은 해당 원문을 번역한 번역가들과의 심층면접을 통해 두 가지 요인을 지목하였다. 우선 대만의 판타지 문학 번역장의 상위장이라 할 수 있는 대만 문학장은 당시 세계화 열풍을 겪고 있었고, 이에 따라 번역가들은 자국화하는 번역 전략보다는 이국화하는 번역 전략을 구사하였다고 설명한다(ibid. 57-61). 또 다른 원인으로 꼽히는 것은 중국 사상가 옌푸(Yan Fu)가 3대 번역 원리 중 하나로 제안한 원문 충실성이다(ibid. 53-57). 옌푸의 번역원리는 교육을 통해 많은 번역가들의 문화자본이 되었고, 번역가들은 이를 아버투스로서 체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번역가들 사이에서 이 원리가 하나의 상징자본이 되었다는 의미이다. 이 사례 또한 번역가의 1차 아버투스가 번역 실천에 영향을 미치는 사례로 볼 수 있다. 또 다른 예로는 수와 추(Xu and Chu 2015)가 있는데, 20세기 초반 중국을 서구 세계에 알린 것으로 유명한 미국 출신 기자이자 번역가 에드가 스노우(Edgar Snow, 1905~1972)의 사례를 조망하였다. 스노우는 중산층 가정에서 성장하며 언론학으로 유명한 미주리대를 졸업하고 카피라이터로 일하다 여행을 떠나 1928년 중국에 도착한다. 당시 중국 외신은 미주리대 출신 졸업생들이 주도하고 있었기에, 학장의 추천서를 받은 그는 어렵지 않게 외신 매체 기자로 일하게 된다. 당시 미국 문학장은 어니스트 헤밍웨이를 필두로 기자 출신 작가들이 선도하고 있었고, 문학의 성격

과 저널리즘의 성격을 혼합한 글쓰기 양식인 문학 저널리즘(literary journalism)이 큰 인기를 끌고 있었다. 따라서 그가 직접 경험하는 중국에 대한 일화는 독자들에게 많은 호응을 받고 그는 미국과 중국에서 명성을 쌓으며 상징자본과 상당한 경제자본을 축적한다. 그러던 중 중국 엘리트 문학인들과 교류하게 되면서, 스노우는 중국 문학을 영어로 번역하겠다는 기획에 착수한다. 그는 중국 문학 단편집 *Living China*를 직접 기획하고 영어로 번역하여 최초로 서구에 소개한다. 분석 결과 그는 원문의 내용을 광범하게 삭제하거나, 원문에 없는 내용을 추가하거나, 원문의 어조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온 것으로 나타났다(ibid. 183-186). 그는 문학 저널리즘이라는 당대의 시류를 교육을 통해 체득하였으며, 기자가 되어서는 육하원칙에 따른 간결한 글쓰기를 체득하였다. 따라서 번역에서 전체 이야기 전개에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과감히 삭제하고, 이야기의 긴장감을 높이고 극적인 효과를 내기 위하여 원문에 없는 수식어를 추가하거나 아예 변형하여 다시 작성하였다. 앞서 수(2011)는 비학자 번역가의 경우 목표어 지향성을, 학자 번역가의 경우 출발어 지향성을 보인다는 가설을 제시하였는데 실증 분석의 결과 역시 이 가설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기 연구 중 파스마치의 경우 헥시스를 분석하면서도 번역가의 1차 아비투스과 삶의 궤적 등 주관적인 측면을 논의로(Pasmatzi 2014: 74)하고 있다. 리양(2016)의 경우 연구대상이 된 번역가를 집단적 존재로만 취급하고 있기에 개별 번역가마다 상이할 수밖에 없는 1차, 2차 아비투스에 대한 상세한 논의를 다루고 있지 않다. 장 이론을 적용한 사회학적 연구가 가질 수 있는 강점은 각 주체가 제각기 다른 삶의 궤적을 거치며 축적해 온 상이한 자본과 1차 아비투스 형성 과정, 이로 인해 상호 구성되는 직업적 아비투스를 통시적, 다각적 관점에서 조망하여 공시적, 단편적, 일반적 특성을 다루는 기존 연구에서 간과되었던 주관성을 조망하는 데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는 번역결과물에 나타난 언어적 특성을 번역주체의 아비투스 및 사회구조와의 상호작용과 연계하여 설명하고 있는데, 이들 간의 인과관계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없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시도가 의미 있는 이유는 이러한 연구 결과를 제시함으로써 번역실천의 실제에 접근하기 위한 논의의 출발점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5. 결론

본고의 분석 결과, 장 이론 기반 번역주체 연구는 번역결과물 분석에 한정된 기존 번역학 연구의 외연을 번역과 연관된 사회적 영역으로 전환하려는 시도에서 촉발되었으나, 점점 더 많은 연구가 핵심역역시 분석 대상에 포함하는 다각적인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증적 연구 결과 번역가의 1차 아비투스과 사회구조와의 상호작용은 번역가의 번역대상 선택, 언어적 특성 등 번역가로서의 2차 아비투스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5.1 기존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연구를 위한 제언

장 이론을 기반으로 한 번역사회학 연구는 기존 번역학 연구의 외연을 확장하고 번역가와 번역 실천의 다양한 측면을 조망할 가능성을 여는 성과를 개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한계를 내포한다. 상기 기술한 번역사회학 연구의 한계점은 분석 틀이 되는 장 이론 자체에 대한 비판적 시각과 이를 활용한 실증적 번역 연구가 갖는 한계점 두 가지로 나뉘 볼 수 있다.

우선 부르디외의 장 이론은 그리스어와 라틴어에서 유래된 술어를 사용하여 구축되었는데, 그 용어와 개념이 매우 난해하며 분명치 않다는 것 때문에 부르디외의 대표적 비판자인 사회학자 라이르(2003)를 비롯한 연구자들에게 종종 비판의 대상이 되어 왔다. 그러나 부르디외는 그의 이론이 더 많은 사회실천 연구에 적용되기만 한다면 개념의 다양한 해석과 적용에 열린 자세를 취했음을 상기해야 한다¹⁰⁾. 부르디외 이론의 뿌리는 실증적 데이터로부터 출발하였고, 부르디외는 그의 이론이 많은 분야에서 실증적 연구를 위해 쓰이기를 누구보다도 희망했다는 점과 국내에 존재하는 부르디외 관련 연구의 공백을 고려할 때, 그 적용 범위를 넓히려는 시도가 필요할 것이다.

부르디외의 장 이론을 적용한 번역사회학 실증 연구의 한계는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부르디외 이론을 기반으로 이루어진 번역학 연구의

10) 부르디외는 자신이 주창한 이론적 개념을 활용하는 데 있어 “자유를 존중하는 감각이 없다면 아무런 진보도 이룰 수 없을 것이다”라고 밝혔다(Bourdieu and Wacquant/이상길 역 1992/2015: 477).

연구방법이 체계적이지 못했다는 비판이 존재한다(Zheng 2017: 30). 예를 들어, 번역 결과물에 대한 분석을 포함하고 있는 번역사회학 선행연구의 경우 표본의 대표성, 데이터의 유효성과 객관성을 검증하기 위한 장치가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분석 대상이 되는 코퍼스의 크기, 어휘다양성 등에 대한 기본 정보가 제공되어 있는지, 연구 결과로 언급되는 삭제나 첨가 전략 등은 타 번역가와 비교할 때 유의미한지에 대한 체계적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연구자의 주관성이 많은 영향을 미치는 질적 자료 분석과정 역시 체계적인 코딩 체계 등 엄밀한 분석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장치를 통해 연구 결과에 대한 타당성과 신뢰성이 담보될 수 있다. 그러나 기존 실증 연구에서 종종 이러한 측면이 간과되어 왔다. 헤시스를 검증하는 연구 중 코퍼스 도구를 활용하여 번역 결과물에 대한 비교적 객관적인 데이터를 제공한 연구는 찰스턴(Charlston 2012, 2013, 2018)이 거의 유일하다. 사실 이러한 연구방법들은 이미 번역학 내에서 체계적으로 구축되어 있기에, 번역사회학 연구에서 활용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양적, 질적자료 분석에 있어 기존 번역학에서 구축되어 온 텍스트 분석 절차를 활용하여 이러한 한계를 보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연구대상이 한정되어 있다는 한계이다. 부르디외의 이론을 활용한 연구 중 상당수는 현재 활동하는 번역가가 아닌 과거 특정 시대에 한때 활동했던 명망 있는 번역가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예: Gouanvic 2014; Hanna 2005; Wolf 2016 등). 따라서 “일부 정전, 저명한 작가나 번역가, 중요한 장소 등 문화적 상징적 자본이 부여된 번역만을 조망”(Olohan 2021: 15)하고 있으며 현시대에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보통 번역가의 실천을 담지 못한다는 비판이 존재한다. 이는 기존 연구가 주로 문헌 연구를 기초로 하기에, 연구에 충분한 문헌 자료가 존재하는 정전이나 저명한 번역가가 연구대상으로 선정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비단 번역사회학 연구만이 아니라 번역학 전반에서 정전이나 문학번역가 등 유명 번역가에 대한 연구에 비해 실용서 번역, 상업번역 등 기타 분야에 대한 연구 공백이 크기 때문일 수도 있을 것이다. 실제로 부르디외를 기반으로 한 번역사회학 연구의 상당수는 문학번역이나 문학번역가를 다루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적은 어디까지나 연구 대상에 대한 지적이며, 분석 틀인 장 이론이 유효하지 않다는 의미는 아니다. 최근 인터넷, 전자책, 다양한 SNS 수단, 동영상 등 번역가를 연구할 수 있는 곁텍스트의 생산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바 이를 활용하면 충분히 명망 있는 과거의 번역가가 아닌 현재 활동 중이며 직업 궤적을 쌓아 나가고 있는 다양한 분야의 번역가를 연구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성찰성(self-reflection)의 부재이다. 부르디외는 연구자가 자신이 채택하는 연구방법을 끊임없이 자신에게 되돌리는 자기성찰(self-reflection)을 통해 학술 장에서의 연구자의 위치를 반문하고 연구 방법을 검증하여 연구의 객관성을 높일 것을 강조한 바 있다(Bourdieu and Wacquant/이상길 역 1992/2015: 90). 번역가의 아비투스 탐색 역시 개별 주체의 주관성을 다루는 만큼 분석 과정에 연구자의 주관이 개입할 우려가 존재한다. 따라서 연구자는 자기성찰을 통해 객관성을 담보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아비투스 연구 중 자기성찰이 반영된 연구는 극히 소수(예: Charlston 2012; 이영훈 2021b)¹¹⁾에 불과하다. 향후 연구에서는 이를 보완하여 연구자가 번역학 학술장 및 연구대상 번역주체가 실천을 영위하는 장과의 이해관계를 기술할 필요가 있다.

5.2 본 연구의 한계 및 의의

본고는 주요 연구 동향을 고찰하고 제언을 제시하는 질적 문헌 연구로, 특정 논문 DB에서의 키워드 검색 등을 통한 양적 분석을 배제하였다. 주요 연구를 취사선택하고 분류하는 작업 과정에서 연구자의 주관이 작용하였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이를 해소하고자 재분류 절차를 거치기는 했지만, 이것으로 본 한계를 완전히 해소했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고의 가장 큰 의의는 장 이론을 통해 밝힐 수 있는 다양한 실증적 결과를 제시함으로써 향후 연구에서 본 이론의 활용가능성을 제고했다는 데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장 이론에 기반한 실증적 번역주체 연구는 국내 번역학 학술장에서 연구 공백이 비교적 큰 분야에 속한다. 좀더 광범위한 번역주체 연구가 이루어져야 번역사회학이 더 “독창적이고 생산적인(truely original and productive)”(Zheng 2017: 28) 분야로 발전한다는 지적대로, 본고가 더 많은 번역주체 연구를 촉발하고 장 이론 관련 연구 공백 해소에 간접적으로

11) 구양백(2014) 역시 자기성찰을 시도할 것을 언급한 바 있다. 그는 번역학 연구자가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매체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나마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김동일 (2016) 『피에르 부르디외』,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이상길 (2018) 『아틀라스의 발』, 서울: 문학과지성사.
- 이영훈 (2021a) 「번역사회학 개관: 피에르 부르디외의 사회학 이론을 기반으로」, 『번역언어기술』 2: 45-69.
- 이영훈 (2021b) 「앙트완 베르만과 프랑스 번역학 장의 탄생: 번역사회학적 분석」, 『번역학연구』 22(5): 231-269.
- 임진 (2020) 「어느 실용 번역가의 아비투스 연구」, 『통번역학연구』 24(1): 167-199.
- 임진 (2021) 「나는 왜 번역하는가?」, 『문화와 융합』 43(6): 659-679.
- 임진 (2023) 『경제·경영서 번역장에 대한 연구 - 번역가 3인의 사례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Abdallah, Kristiina (2014) ‘The Interface between Bourdieu’s Habitus and Latour’s Agency: The Work Trajectories of Two Finnish Translators’, in Gisella M. Vorderobermeier (ed.) *Remapping Habitus in Translation Studies*, Amsterdam: Rodopi, 111-132.
- Alkhwaja, Linda (2019) ‘Habitus and Intellectual Trajectory in the Translational Process: A Case Study’, *Al-Balqa Journal for Research and Studies* 22(1): 9-24.
- Angelelli, Claudia V. (ed.) (2014) *The Sociological Turn in Translation and Interpreting Studies*, Amsterdam: John Benjamins.
- Bayri, Furzana (2019) ‘Li-Qawmin Yatafakkarun (Q 30:21): Muhammad Asad’s Qur’anic Translational Habitus’, *Journal of Qur’anic Studies* 21(2): 1-38.
- Ben-Ari, Nitsa (2012) ‘Political Dissidents as Translators, Editors, and Publishers’, *Translation and Interpreting Studies* 7(2): 144-160.
- Berneking, Steve (2016) ‘A Sociology of Translation and the Central Role of

- the Translator', *The Bible Translator* 67(3): 265-281.
- Bourdieu, Pierre (1991) *Language and Symbolic Power*, Cambridge: Polity.
- Bourdieu, Pierre and Loïc Wacquant (1992) 『성찰적 사회학으로의 초대』 (이상길 역, 2015년 출간), 서울: 그린비출판사.
- Buzelin, Hélène (2005) 'Unexpected Allies: How Latour's Network Theory Could Complement Bourdieusian Analyses in Translation Studies', *The Translator* 11(2): 193-218.
- Buzelin, Hélène (2006) 'Independent Publisher in the Networks of Translation', *TTR* 19(1): 135-173.
- Buzelin, Hélène (2007) 'Translations "in the Making"', in Michaela Wolf and Alexandra Fukari (eds) *Constructing a Sociology of Translation*, Amsterdam: John Benjamins, 135-169.
- Charlston, David (2012) *Hegel's Phenomenology in Translation: A Comparative Analysis of Translatorial Hexis*,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Manchester.
- Charlston, David (2013) 'Textual Embodiments of Bourdieusian Hexis: JB Baillie's Translation of Hegel's Phenomenology', *The Translator* 19(1): 51-80.
- Charlston, David (2018) 'Hegel's Phenomenology: A Comparative Analysis of Translatorial Hexis', in Kirsten Malmkjaer, Adriana Șerban and Fransiska Louwagie (eds) *Key Cultural Texts in Translation*, Amsterdam: John Benjamins, 181-190.
- Charlston, David (2020) *Translation and Hegel's Philosophy*, New York: Routledge.
- Chesterman, Andrew (2007) 'Bridge Concepts in Translation Sociology', in Michaela Wolf and Alexandra Fukari (eds) *Constructing a Sociology of Translation*, Amsterdam: John Benjamins, 171-183.
- Chesterman, Andrew (2009) 'The Name and Nature of Translator Studies', *Hermes* 42: 13-22.
- Chung, Yu-Ling (2013) *Translation and Fantasy Literature in Taiwan*,

- Basingstoke, England: Palgrave Macmillan.
- Gouanvic, Jean-Marc (1997) 'Translation and the Shape of Things to Come', *The Translator* 3(2):125-152.
- Gouanvic, Jean-Marc (2005) 'A Bourdieusian Theory of Translation, or the Coincidence of Practical Instances: Field, "Habitus", Capital and "Illusio"', *The Translator* 11(2): 147-166.
- Gouanvic, Jean-Marc (2007) 'Objectivation, Réflexivité et Traduction – Pour une Re-Lecture Bourdieusienne de la Traduction', in Michaela Wolf and Alexandra Fukari (eds) *Constructing a Sociology of Translation*, Amsterdam: John Benjamins, 79-92.
- Gouanvic, Jean-Marc (2014) 'Is Habitus as Conceived by Pierre Bourdieu Soluble in Translation Studies?', in Gisella M. Vorderobermeier (ed.) *Remapping Habitus in Translation Studies*, Amsterdam: Rodopi, 29-42.
- Gouanvic, Jean-Marc and Laura Schultz (2010) 'Outline of a Sociology of Translation Informed by the Ideas of Pierre Bourdieu', *MonTI* 2(2): 119-129.
- Grbić, Nadja (2014) 'Interpreters in the Making: Habitus as a Conceptual Enhancement of Boundary Theory?', in Gisella M. Vorderobermeier (ed.) *Remapping Habitus in Translation Studies*, Amsterdam: Rodopi, 93-109.
- Grenfell, Michael (2008) 'Introduction', in Michael Grenfell (ed.) *Pierre Bourdieu: Key Concepts*, Durham: Acumen, 1-6.
- Hanna, Sameh F. (2005) 'Hamlet Lives Happily Ever after in Arabic: The Genesis of the Field of Drama Translation in Egypt', *The Translator* 11(2): 167-192.
- Hanna, Sameh F. (2014) 'Remapping Habitus: Norms, Habitus, and the Theorisation of Agency in Translation Practice and Translation Scholarship', in Gisella M. Vorderobermeier (ed.) *Remapping Habitus in Translation Studies*, Amsterdam: Rodopi, 59-71.
- Hanna, Sameh F. (2016) *Bourdieu in Translation Studies*, New York: Routledge.

- Ibarluzea, Miren (2014) 'The Translation Habitus of Contemporary Basque Writers', *Estudios de Traducción* 5: 59-75.
- Inghilleri, Moira (2003) 'Habitus, Field and Discourse: Interpreting as a Socially Situated Activity', *Target* 15(2): 243-268.
- Inghilleri, Moira (2005a) 'Mediating Zones of Uncertainty: Interpreter Agency, the Interpreting Habitus and Political Asylum Adjudication', *The Translator* 11(1): 69-85.
- Inghilleri, Moira (2005b) 'The Sociology of Bourdieu and the Construction of the "Object" in Translation and Interpreting Studies', *The Translator* 11(2): 125-145.
- Inghilleri, Moira (2009) 'Sociological Approaches', in Mona Baker and Gabriela Saldanha (eds) *Routledge Encyclopedia of Translation Studies*, second edition, New York: Routledge, 279-282.
- Inghilleri, Moira (2014) 'Bourdieu's Habitus and Dewey's Habits: Complementary Views of the Social?', in Gisella M. Vorderobermeier (ed.) *Remapping Habitus in Translation Studies*, Amsterdam: Rodopi, 185-201.
- Inghilleri, Moira (2020) 'Field Theory', in Mona Baker and Gabriela Saldanha (eds) *Routledge Encyclopedia of Translation Studies*, third edition, New York: Routledge, 194-199.
- Liang, Wayne Wen-chun (2016) 'Translators' Behaviors from a Sociological Perspective – A Parallel Corpus Study of Fantasy Fiction Translation in Taiwan', *Babel* 62(1): 39-66.
- Liu, Christy (2013a) 'A Quantitative Enquiry into the Translator's Job-Related Happiness: Does Visibility Correlate with Happiness?', *Across Languages and Cultures* 14(1):123-147.
- Liu, Christy (2013b) 'Revisiting the Translator's Visibility: Does Visibility Bring Rewards?', *Meta* 58(1): 25-57.
- Mason, Ian and Wen Ren (2012) 'Power in Face-to-Face Interpreting Events', *Translation and Interpreting Studies* 7(2): 234-253.

- Maton, Karl (2008) ‘Habitus’, in Michael Grenfell (ed.) *Pierre Bourdieu: Key Concepts*, Durham: Acumen, 49-65.
- Meylaerts, Reine (2008) ‘Translators and (Their) Norms: Towards a Sociological Construction of the Individual’, in Anthony Pym, Miriam Shlesinger and Daniel Simeoni (eds) *Beyond Descriptive Translation Studies: Investigations in Homage to Gideon Toury*, Amsterdam: John Benjamins, 91-102.
- Meylaerts, Reine (2010) ‘Habitus and Self-Image of Native Literary Author-Translators in Diglossic Societies’, *Translation and Interpreting Studies* 5(1): 1-19.
- Olohan, Maeve (2021) *Translation and Practice Theory*, New York: Routledge.
- Osman, Ghada (2012) ‘The Sheikh of the Translators’, *Translation and Interpreting Studies* 7(2): 161-175.
- Pasmatz, Kalliopi (2012) ‘Translating the Greek Civil War: Alexandros Kotzias and the Translator’s Multiple Habitus’, *New Voices in Translation Studies* 8(1):115-131.
- Prunč, Erich (2007) ‘Priests, Princes and Pariahs: Constructing the Professional Field of Translation’, in Michaela Wolf and Alexandra Fukari (eds) *Constructing a Sociology of Translation*, Amsterdam: John Benjamins, 39-56.
- Sela-Sheffy, Rakefet (2005) ‘How to Be a (Recognized) Translator’, *Target* 17(1): 1-26.
- Sela-Sheffy, Rakefet (2006) ‘The Pursuit of Symbolic Capital by a Semi-Professional Group: The Case of Literary Translators in Israel’, Michaela Wolf (ed.) *Übersetzen - Translating - Traduire: Towards a “Social Turn”*, Berlin: LIT Verlag, 243-252.
- Sela-Sheffy, Rakefet (2014) ‘Translators’ Identity Work: Introducing Micro-Sociological Theory of Identity to the Discussion of Translators’ Habitus’, in Gisella M. Vorderobermeier (ed.) *Remapping Habitus in Translation Studies*, Amsterdam: Rodopi, 43-55.

- Simeoni, Daniel (1998) 'The Pivotal Status of the Translator's Habitus', *Target* 10(1): 1-39.
- Song, Zhongwei (2012) 'The Art of War in Retranslating Sun Tzu', *Translation and Interpreting Studies* 7(2): 176-190.
- Torikai, Kumiko (2014) 'Oran History as a Research Method to Study Interpreters' Habitus', in Gisella M. Vorderobermeier (ed.) *Remapping Habitus in Translation Studies*, Amsterdam: Rodopi, 135-147.
- Tyulenev, Sergey (2014) *Translation and Society: An Introduction*, New York: Routledge.
- Vorderobermeier, Gisella M. (ed.) (2014a) *Remapping Habitus in Translation Studies*, Amsterdam: Rodopi.
- Vorderobermeier, Gisella M. (2014b) 'The (Re-)Construction of Habitus: A Survey-Based Account of Literary Translators' Trajectories Put into Methodological Perspective', in Gisella M. Vorderobermeier (ed.) *Remapping Habitus in Translation Studies*, Amsterdam: Rodopi, 149-161.
- Williams, Jenny and Andrew Chesterman (2002) *The Map: A Beginner's Guide to Doing Research in Translation Studies*. Manchester: Saint Jerome Publishing.
- Wolf, Michaela (2006) 'The Female State of the Art: Women in the "Translation Field"', in Anthony Pym, Miriam Shlesinger and Jettmarová Zuzana (eds) *Sociocultural Aspects of Translating and Interpreting*, Amsterdam: John Benjamins, 129-141.
- Wolf, Michaela (2007a) 'Introduction: The Emergence of a Sociology of Translation', in Michaela Wolf and Alexandra Fukari (eds) *Constructing a Sociology of Translation*, Amsterdam: John Benjamins, 1-36.
- Wolf, Michaela (2007b) 'The Location of the "Translation Field": Negotiating Borderlines between Pierre Bourdieu and Homi Bhabha', in Michaela Wolf and Alexandra Fukari (eds) *Constructing a Sociology of Translation*, Amsterdam: John Benjamins, 109-119.
- Wolf, Michaela (2012) 'The Sociology of Translation and Its "Activist Turn"',

- Translation and Interpreting Studies* 7(2): 129-143.
- Wolf, Michaela (2015) *The Habsburg Monarchy's Many-Languaged Soul*, Amsterdam: John Benjamins.
- Wolf, Michaela and Alexandra Fukari (eds) (2007) *Constructing a Sociology of Translation*, Amsterdam: John Benjamins.
- Xu, Minhui (2011) *English Translations of Shen Congwen's Stories*, doctoral dissertation, The Hong Kong Polytechnic University.
- Xu, Minhui (2012) 'On Scholar Translators in Literary Translation – A Case Study of Kinkley's Translation of "Biancheng"', *Perspectives* 20(2): 151-163.
- Xu, Minhui and Chi Yu Chu (2015) 'Translators' Professional Habitus and the Adjacent Discipline: The Case of Edgar Snow', *Target* 27(2): 173-191.
- Yannakopoulou, Vasso (2014) 'The Influence of the Habitus on Translational Style: Some Methodological Considerations Based on the Case of Yorgos Himonas' Rendering of Hamlet into Greek', in Gisella M. Vorderobermeier (ed.) *Remapping Habitus in Translation Studies*, Amsterdam: Rodopi, 163-182.
- Zheng, Jing (2017) 'An Overview of Sociology of Translation: Past, Present and Future', *International Journal of English Linguistics* 7(4): 28-32.

[Abstract]

What Do Field Theory-based Translator Studies Tell Us?

Jin Yim

(Ewha Womans University)

This study aims to shed light on the empirical results of translator studies carried out based on field theory, arguably the most widely-adopted theoretical framework in sociology of translation. To help close the domestic research gap in this area, the author carried out a qualitative literature review on empirical translator studies whose theoretical framework stems from Bourdieu's field theory. It was found that this line of study has been evolving into triangulation that combines various approaches—quantitative and qualitative methods; focusing on outside and inside the translated texts; text analysis and interviews, etc. Also notable from the results of those empirical studies is that translation practice is constantly being shaped by complex interactions between social structures and individuals that include but are not limited to a translator's life trajectories as well as the social context of translation practice. Despite the success in revealing meaningful aspects of translation practice, sociological approach is not without some methodological shortcomings that could affect the reliability and credibility of research, which is expected to be overcome by further research on a broader range of translators practicing in more diverse areas.

Keywords: sociology of translation, Bourdieu, field theory, translator study, agent, translation field

주제어: 번역사회학, 부르디외, 장이론, 번역주체연구, 번역장

임진(<https://orcid.org/0009-0005-4335-3329>)

이화여자대학교 통역번역대학원 강사

jy2812@gmail.com

관심 분야: 번역주체연구, 번역사회학, 코퍼스연구, 결텍스트

논문 투고: 2023년 8월 15일

1차 심사 완료: 2023년 8월 31일

2차 심사 완료: 2023년 9월 10일

게재 확정: 2023년 9월 19일